

일자리 창출 부진 신문보도 관련

2007. 11. 2

**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정규승**

I. 문제제기

□ 경향신문 보도

경향신문 2007년 10월 17일자 '9월 일자리 창출 부진...2개월 연속 30만명 밀돌아' 보도와 관련하여, 고용상황에 관하여 조사함

□ 30만명 기준 근거

○ 2007년 경제운용방향

2007년 1월 4일 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 관한 문건에서 '2007년 우리 경제의 모습'(pp67)의 고용에 관하여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전망' 언급

용어설명 일자리 창출: 경향신문 보도 자료에서 언급한 일자리 창출 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분을 의미함

I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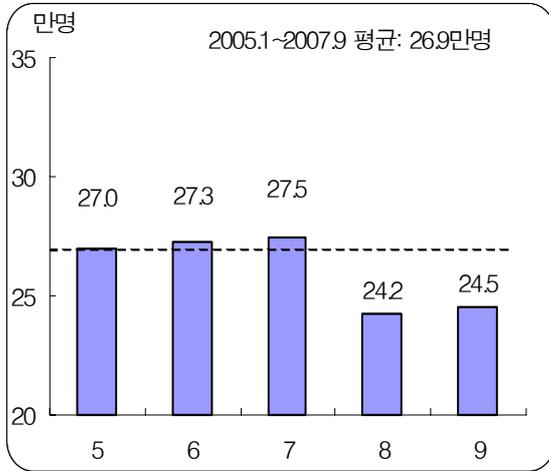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추이

<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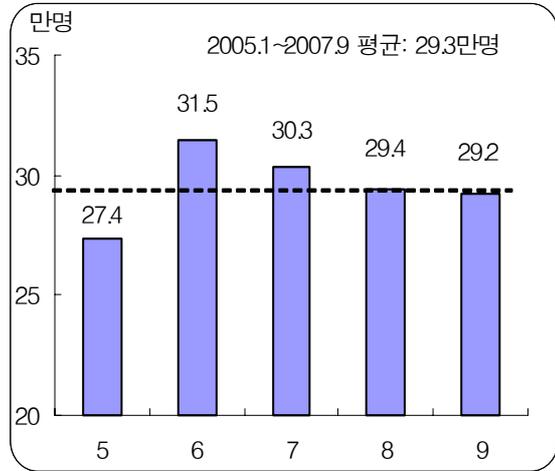
(단위: 만명, %)

월	2006			2007			2007~2006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증감	취업자증감
5	2,427	2,348	3.23	2,454	2,376	3.17	27.0	27.4
6	2,432	2,350	3.37	2,459	2,382	3.16	27.3	31.5
7	2,427	2,345	3.39	2,455	2,375	3.24	27.5	30.3
8	2,397	2,316	3.37	2,421	2,346	3.12	24.2	29.4
9	2,410	2,333	3.18	2,434	2,362	2.95	24.5	29.2

< 그림 1 경제활동인구 >



< 그림 2 취업자 >



○ 경제활동인구

표 1에서 금년 8월과 9월에 경제활동인구는 소폭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인구 증감(2005.1~2007.9 평균 26.9만명)
8월: 24.2만명, 9월: 24.5만명

○ 취업자 증감

올해 8월과 9월에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는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언급한 취업자 증가 전망치 3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2005.1~2007.9 평균 29.3만명)
8월: 29.4만명, 9월: 29.2만명

※ 2007년 5월에 통신업 취업자가 감소(△1.6만명)하고,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0.7만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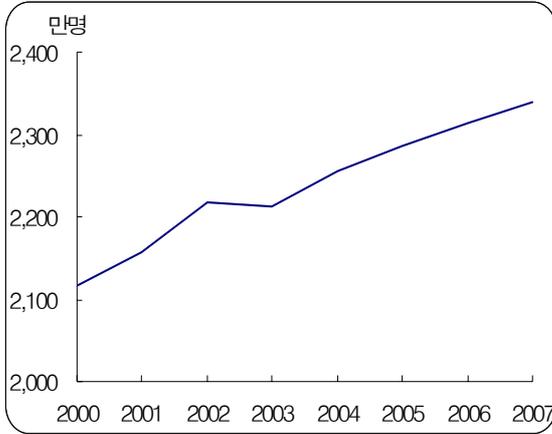
○ 실업률

올해 8월과 9월에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여, 200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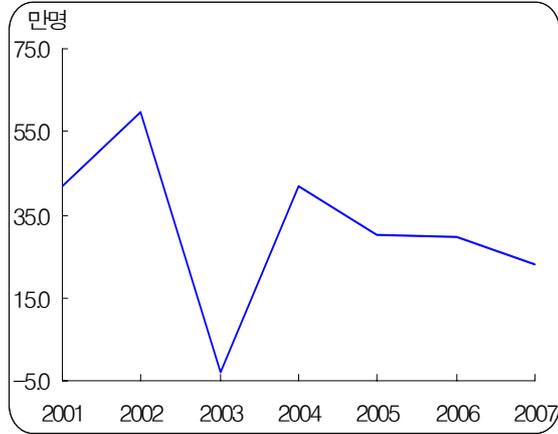
- 실업률(2005.1~2007.9 평균 3.5%)
8월: 3.12%, 9월: 2.95%

Ⅲ.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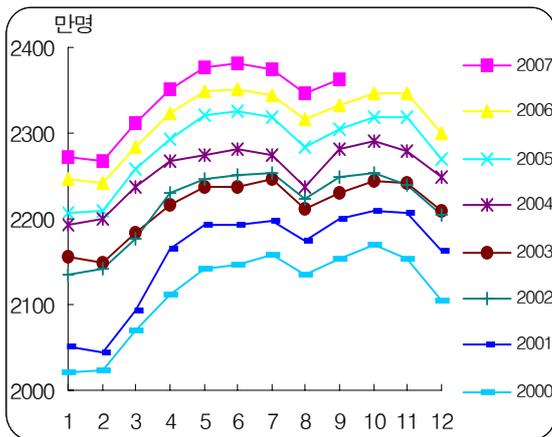
< 그림 3 연별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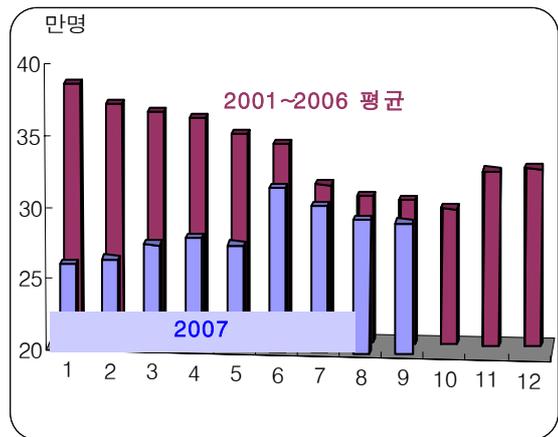
< 그림 4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 >



< 그림 5 월별 취업자 >



< 그림 6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 >



□ 취업자

○ 취업자 추이

그림 3에서 연별 취업자는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인한 임시고용의 증가로 인하여 2003년 취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임시근로자: 2002년 21.5만명 증가, 2003년 30.3만명 감소

○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

그림 4에서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은 당해년 또는 직전년의 고용수급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 월별 취업자

- 그림 5에서 월별 취업자가 5~7월과 10~11월에 높게 나타나는 반면, 1~2월과 8~9월, 그리고 12월에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

- 그림 6에서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는 상반기에는 평균적으로 변동이 심하고 증감폭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적으면서 증감폭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

· 2000년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의 표준편차
상반기: 25.0, 하반기: 19.9

- 금년 8월, 9월 월별 취업자 증감은 2007년 월별 증감의 평균인 28.3만명보다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금년 8월, 9월의 고용동향에 관하여 신규 취업자가 30만명에 못 미쳤다는 것만으로 고용정책을 판단하기보다 여러 다른 고용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정확한 평가를 도출할 수 있음

IV. 결론

□ 고용의 질적 개선

○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금년 8월에 2004년 10월 이후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가장 컸고 2003년 7월 이후 비임금근로자 감소폭이 최대임

- 임금근로자 증가폭: 53.1만명(2004.10, 58.7만명)
- 비임금근로자 감소폭: 23.8만명(2003.7, 32.7만명)

□ 고용동향의 지표변수

○ 실업률

고용동향의 지표변수인 실업률은 금년 9월에 200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실업률: 2.95%(2002.11, 2.88%)

□ 신규 취업자 목표

○ 신규 취업자 30만명 기준

- 금년 8월, 9월에 신규 취업자가 30만명에 미치지 못 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은 다른 고용변수들 즉,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등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정된 기준이므로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고용동향의 주요지표인 실업률이 200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비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동을 통한 고용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므로, 경향신문의 보도에서 올해 8월, 9월의 고용동향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